

케이스탯 2021년 5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큰 폭 우세 유지
- _ 경제 방향성 : 부정평가 우세 여론 여전
- _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59%로 지속 우위
- _ 정부정책 만족도 : 11개월 연속 부정평가 우위
- _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4%
- _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줄어들 것’ 26%
- _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늘어날 것’ 24%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우위 지속
- _ 주식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39%로 소폭 증가

■ 5월 특별지표 : 한국인 ‘불안 의식’ 진단

- _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 ‘불안하다’ 70%
- _ 삶 영역별 불안감, ‘경제적 문제’ 가장 높아
- _ 수도권, 모든 영역에서 ‘불안감’ 높아
- _ 여자 18~20대 불안감, 특히 높아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5월 7일(금) ~ 5월 9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57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1\%p$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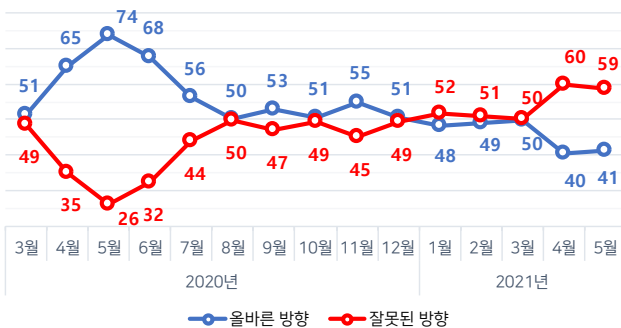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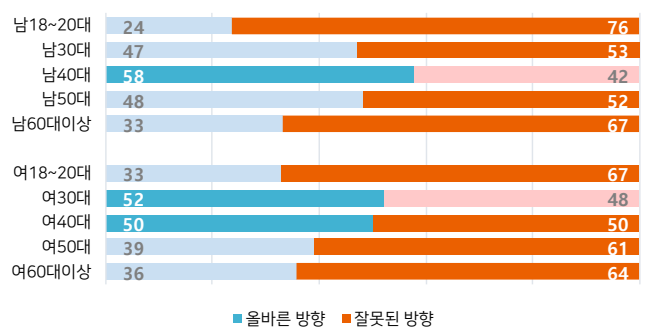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큰 폭 우세 유지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의견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한 모습임
 - 2021년 5월 조사결과 '잘못된 방향' 59% vs '올바른 방향' 41%로, 지난 4월 조사결과와 별 차이가 없음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고, '올바른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30대 △호남 △진보층에 그침
 - 여자 40대는 '올바른 방향' 50% vs '잘못된 방향' 50%로 수치가 동일함
-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여자 60대이상 △TK △보수층 △주부, 학생 △개인이익증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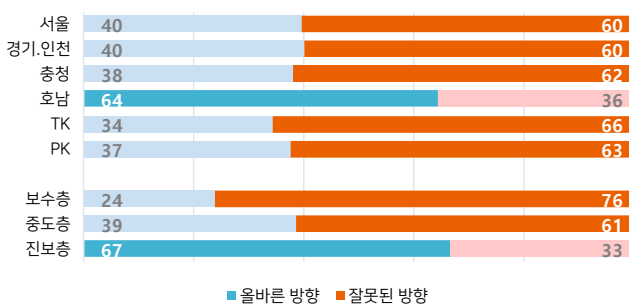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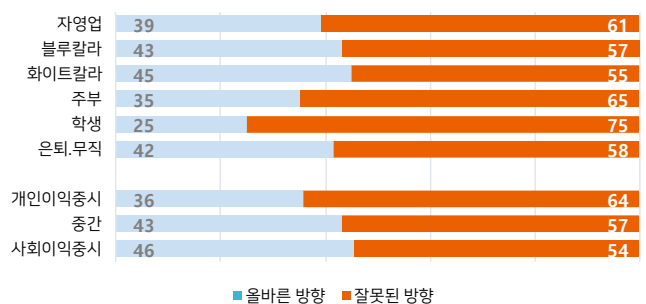
5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5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5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증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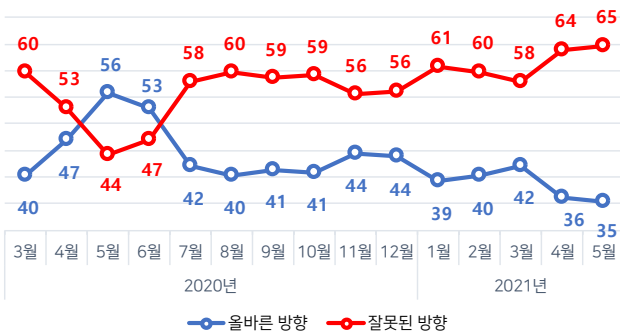
Kstat Point

- ☑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이 '쇄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국민여론 역시 제자리를 유지한 양상임 : 재·보궐선거 직후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으로 평가받는 윤호중 의원이 당선된 것에서 보듯 여권은 '쇄신'보다 '안정'을 선택함
- ☑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불안정한 백신 수급으로 접종 속도가 늦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5월 16일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 완료 인구비율은 1.8%로 전 세계 4.6%보다 낮음(자료, Our World in Data)
- ☑ 5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경우,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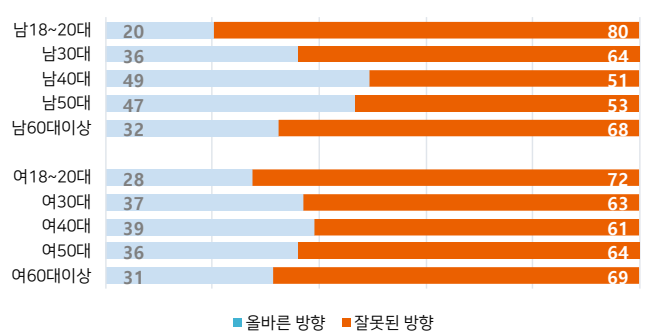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부정평가 우세 여론 여전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 평가는 조사를 시작한 이후 11개월 연속 부정평가 우위가 지속됨
 - 이번 5월 조사에서도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65%를 기록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호남과 진보층에 불과함
 - 호남과 진보층의 의견도 '올바른 방향'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지 않음
-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여자 60대이상 △충청, PK △보수층, 중도층 △자영업, 주부, 학생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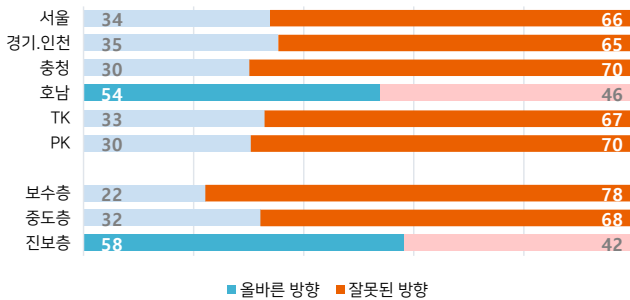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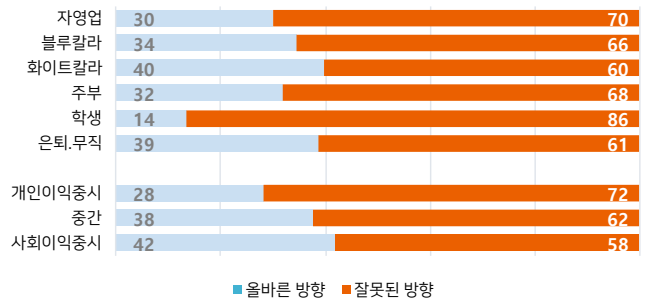
5월 경제 방향성 평가: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5월 경제 방향성 평가: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5월 경제 방향성 평가: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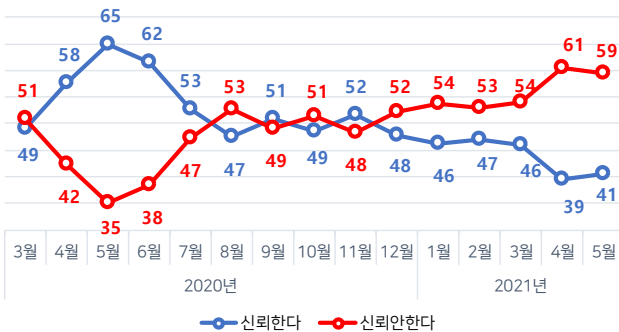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나라 경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 : 2020년 경제성장률은 -1.0%로 역성장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선방했으며, 2021년 경제성장률은 11년 만에 4%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 2021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금융연구원 4.1%, LG경제연구원 4.0%, JP모건 4.6% 등 전반적으로 낙관적임
- ☑ 그러나 경제성장이 수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가 낮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국민이 경제성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는 경제성장률 개선과 다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 최근 민간소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지난 시기 워낙 침체되었던 '기저 효과'에 따른 측면이 강함
- ☑ 정부가 경제성장률 수치를 들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경제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수경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민적 공감은 약하고, 경제 방향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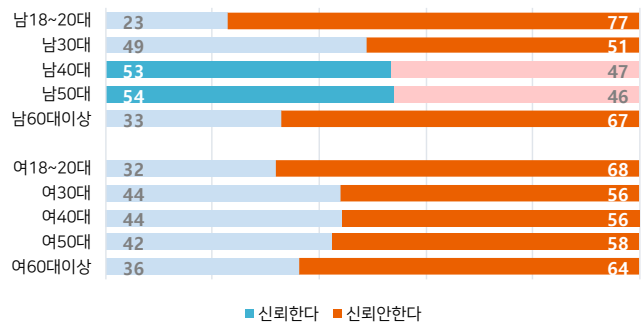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59%로 지속 우위

- 정부 신뢰도는 지난 4월에 비해 소폭 반등해 41%를 기록했으나,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59%로 지속적으로 우위를 나타냄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정부를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부정적 의견이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여자 60대이상 △충청 △보수층 △주부, 학생 △개인이익 중시층 등임
- 정부를 '신뢰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50세대 △호남 △진보층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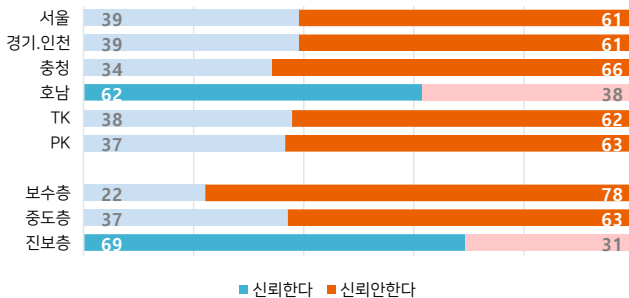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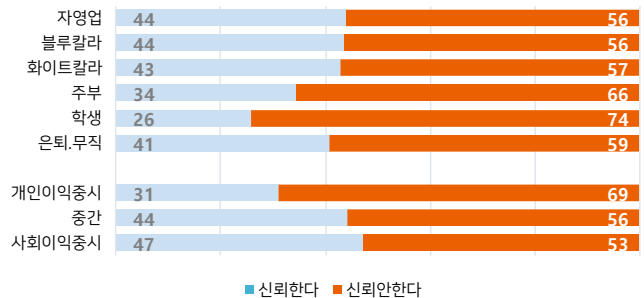
5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5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5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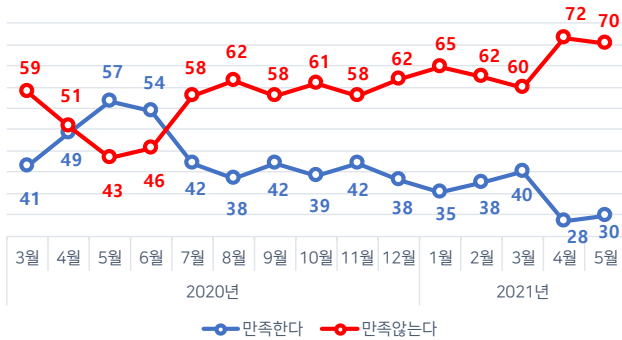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경제 방향성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계층과 정부를 '신뢰 안한다'는 계층이 동일함 : 성/연령별로는 남녀 18~20대와 남녀 60대 이상으로 이들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정부에 가장 비판적임
- ☑ 한편, 낮은 정부 신뢰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5월 17일 현재 코로나19 접종 예약률을 살펴보면 정부 기대와 달리 낮은 수준임 : 70~74세 예약률, 58.3% / 65~69세 예약률 49.1% / 60~64세 예약률 29.9%(자료,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 ☑ 정부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예약률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남녀 60대이상 연령층의 낮은 정부신뢰도가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감 및 백신 접종 부작용 사례와 맞물리면서 백신접종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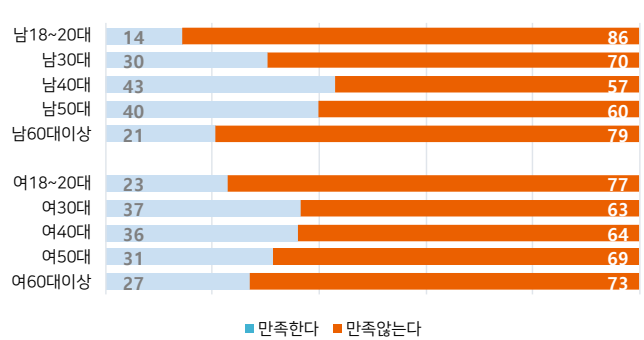
□ 정부정책 만족도 : 11개월 연속 부정평가 우위

- 정부정책 만족도는 지난 7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함
 - 5월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은 30%이고, ‘만족 않는다’는 의견은 70%로 나타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만족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호남과 진보층에 그침
 - 호남과 진보층의 ‘만족한다’는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51%, 52%로 매우 근소한 우위임
-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여자 60대이상 △경기.인천, 충청, TK △보수층, 중도층 △학생, 은퇴.무직자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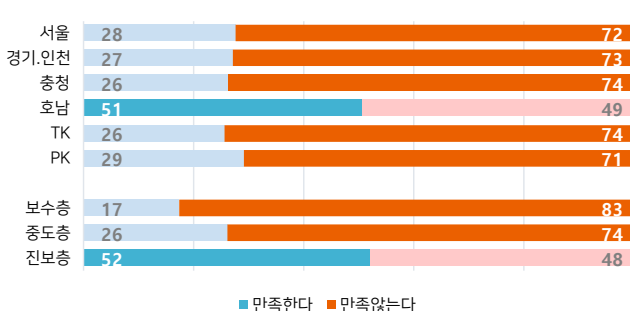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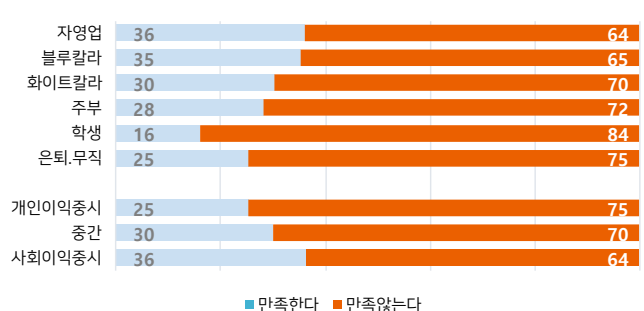
5월 정부정책 만족도: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5월 정부정책 만족도: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5월 정부정책 만족도: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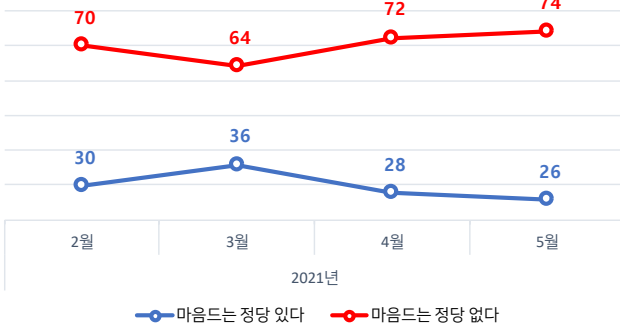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정책에 만족하는 계층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 및 참여도는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됨
- ☑ 여론은 당·정·청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당 주도론'이 부각되면서 정부정책을 둘러싼 여권 내 계파갈등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됨
 - : 최근 여당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흐름에 친문 핵심인 강병원 최고위원이 "부동산 정책 실패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 단적인 예임
- ☑ 특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미래 권력(차기 대권주자)으로의 '힘 쏠림'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계파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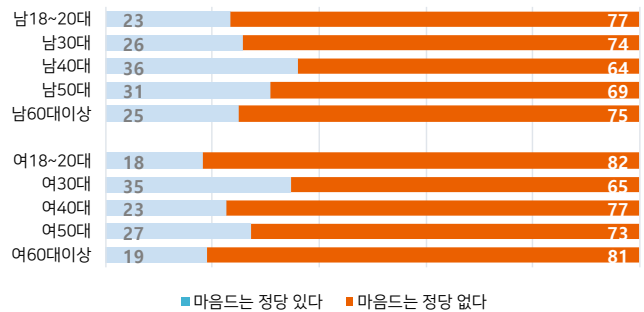
□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4%

- 마음에 드는 정당, 즉 정당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5월 조사에서도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하고, '없다'는 의견이 74%를 기록함
- 모든 계층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18~20대, 여자 60대이상 △충청 △중도층 △주부,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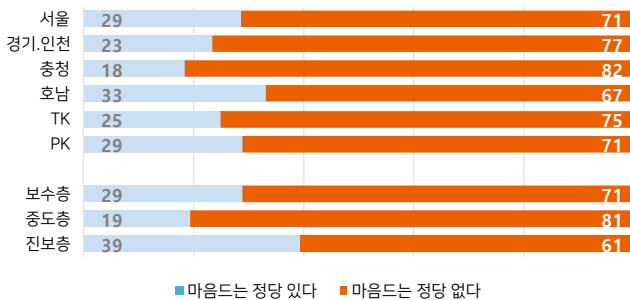
정당 호감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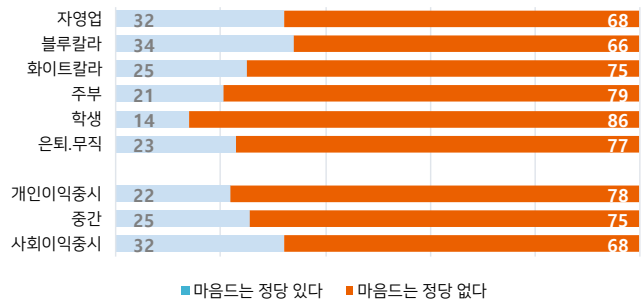
5월 정당 호감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2021.05.09조사, 단위:%)



5월 정당 호감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1.05.09조사, 단위:%)



5월 정당 호감도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1.05.09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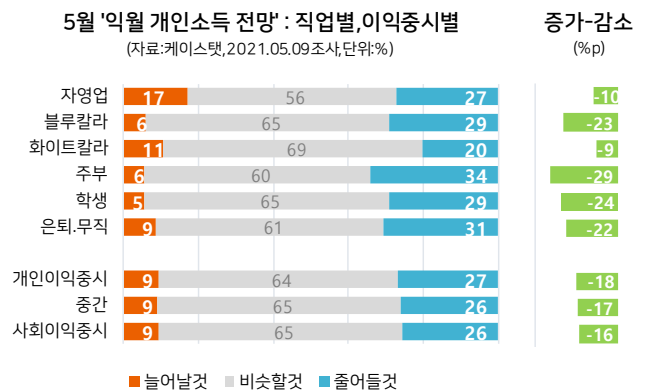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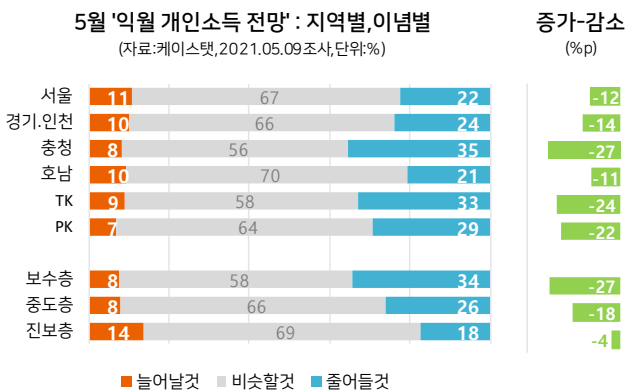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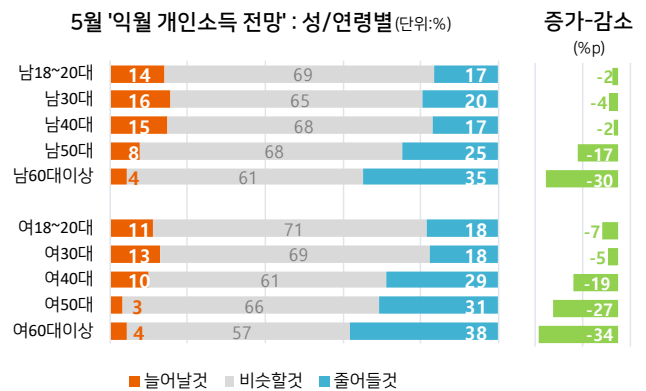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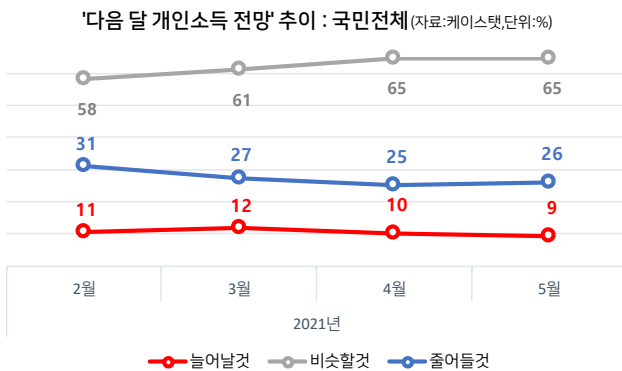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작동하고 있음
- ☑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 :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의 의견과 관심사를 대변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 주장 공감도, 25%
 - : “우리나라 정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주장 공감도, 71%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3호(2020년 9월24일자) 『민주주의와 개인자유 국민의식 분석』 참고)
- ☑ 이렇듯 지금의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종합할 때, 향후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정치’와 ‘미래 비전’이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으로 전망됨
 - : 사실 이 두 가지 아젠다는 대통령 선거 시기마다 대두되지만 이른바 ‘진영 대립구도’ 속에 와해되는 경우가 많음
 - : 즉, ‘새로운 정치’와 ‘미래 비전’이 중시되다가도 대선국면이 본격화 되면 ‘보수진영 vs 진보진영’ 간의 대립 속에 각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 지지로 후퇴함(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지함)
- ☑ 국민들의 이러한 경향이 오는 대선에서도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진영대결을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와 ‘미래 비전’을 선택할 것인지 주목되는 지점임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줄어들 것' 26%

- 국민 다수는 다음 달 자신의 개인 소득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어날 것'이라는 국민은 9%에 불과함
 - 5월 조사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65%이고, '줄어들 것' 26%, '늘어날 것' 9% 순으로 조사됨
 - 조사 이후 이러한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음
- '늘어날 것'에서 '줄어들 것'을 뺀 '차이'는 -17%p로 지난 4월보다 소폭(2%p) 증가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차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특히 마이너스 폭이 큰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 △여자 5060세대 △충청, TK, PK △보수층 △블루칼라,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여자 60대 이상이 -34%p로 가장 폭이 크고, 다음으로 남자 60대 이상이 -30%p로 뒤를 이음
-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은 계층은 △남자 2040세대 △여자 2030세대 △진보층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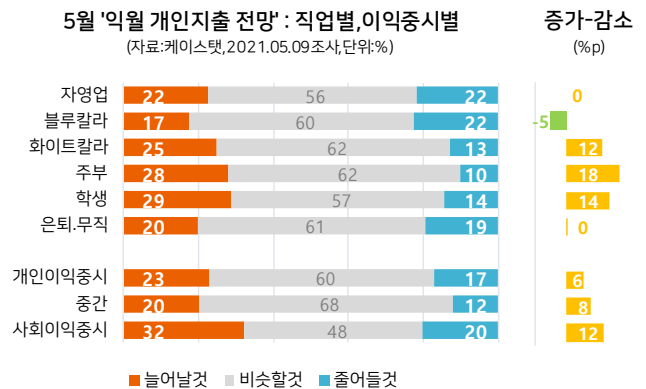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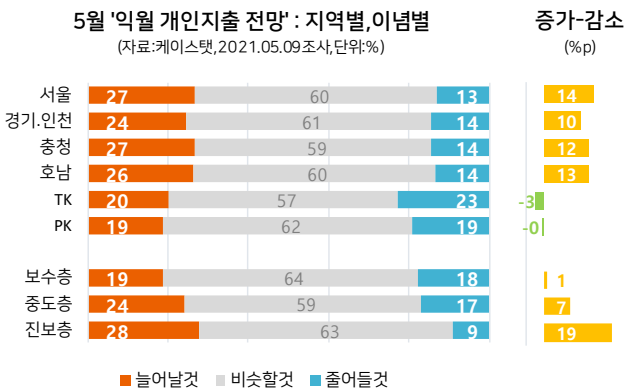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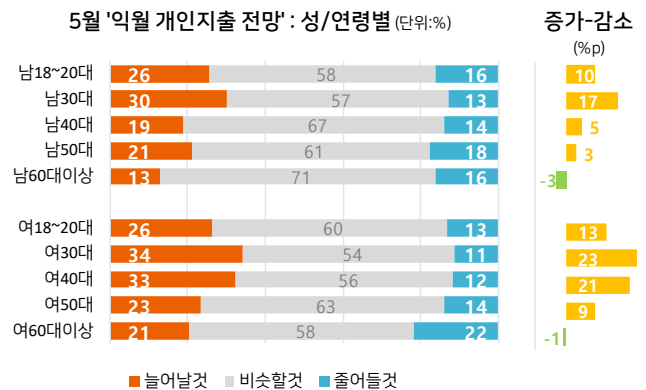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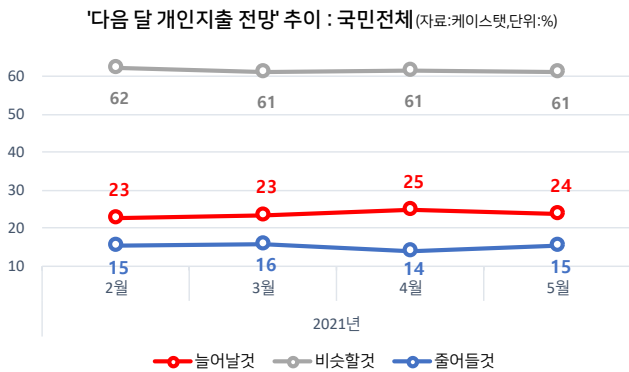


Kstat Point

- ☑ OECD에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65세 이상)은 4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2018년 기준)
 - : 이는 OECD 전체 14.8%의 3배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에 있어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남녀 60대 이상의 마이너스 폭이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노인빈곤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64만 2천 명 증가하고, 이 중 60대 이상이 73.1%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됨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늘어날 것' 24%

- 국민 다수는 다음 달 개인 지출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함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은 61%이고, '지금보다 늘어날 것' 24%, '지금보다 줄어든 것' 15% 순으로 조사됨
- 대부분의 계층에서 '차이'(늘어날 것 - 줄어든 것)가 플러스를 보였으며, 특히 플러스 수치가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3040세대 △진보층 △주부 등임
- '차이'가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한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60대이상 △TK, PK △블루칼라 종사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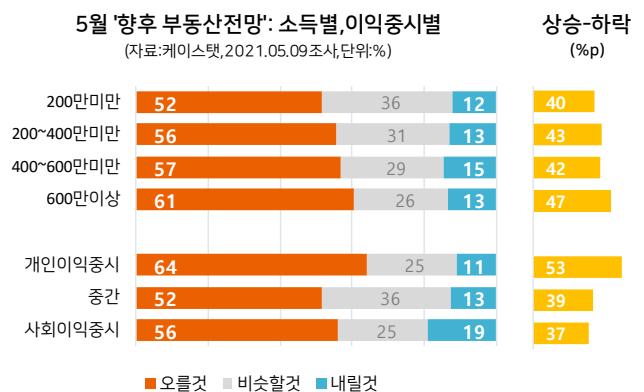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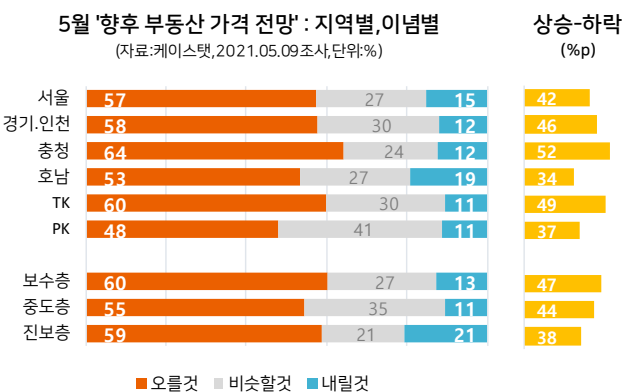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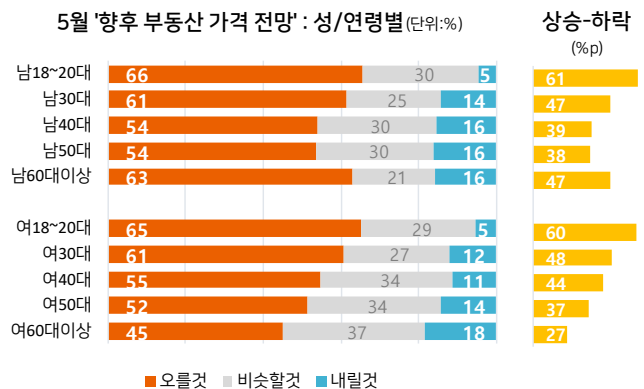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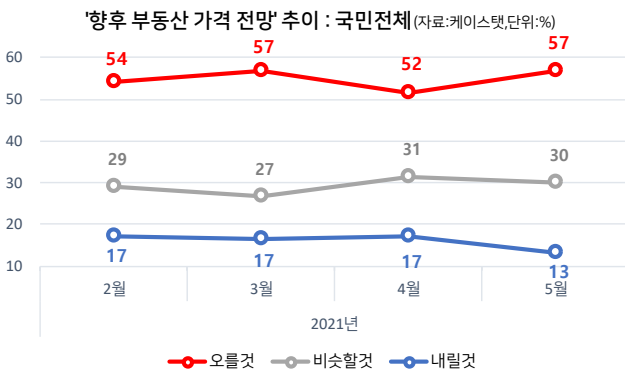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다수는 조사를 시작한 2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음 달 수입과 지출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함 :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인 경제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 여기에 수입은 줄어 들고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자도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분석됨
- ☑ 정부 계획대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경제가 일상으로 회복되는 11월까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우위 지속

-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함
 -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금과 비슷할 것' 30%, '지금보다 내릴 것' 13% 순으로 응답함
- 모든 계층에서 '차이'(오를 것 - 내릴 것)가 플러스를 기록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여론은 계층과 무관하게 같은 의견을 보임
- '차이'가 플러스를 기록한 계층 중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2030세대 △충청, TK △보수층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 플러스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여자 5060세대 △호남, PK △진보층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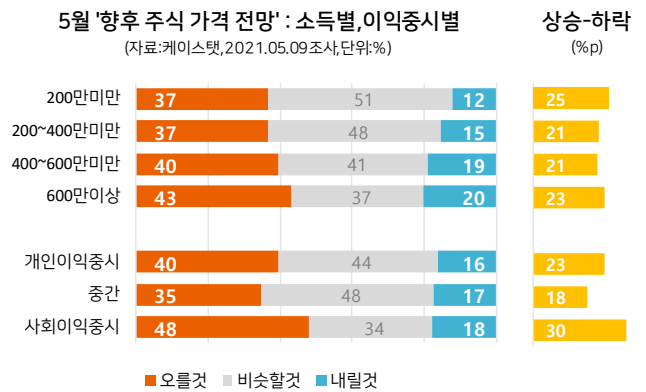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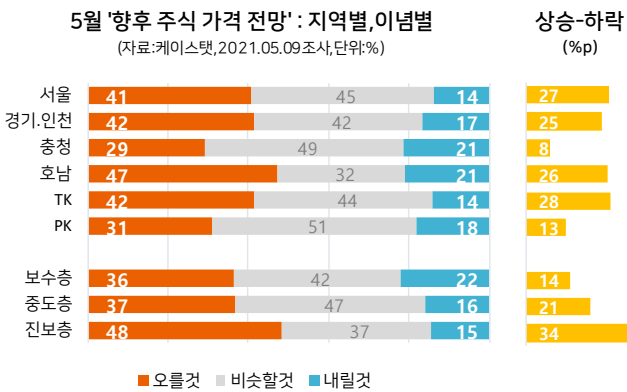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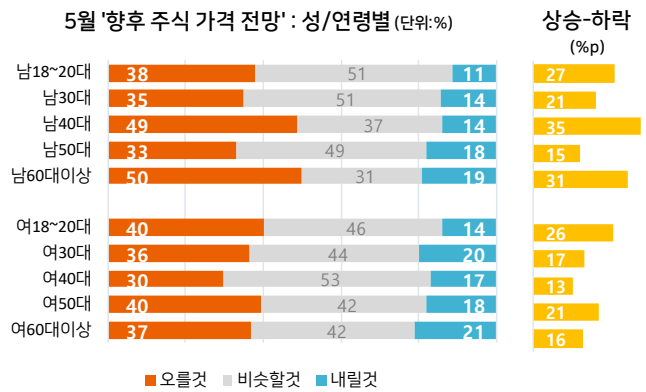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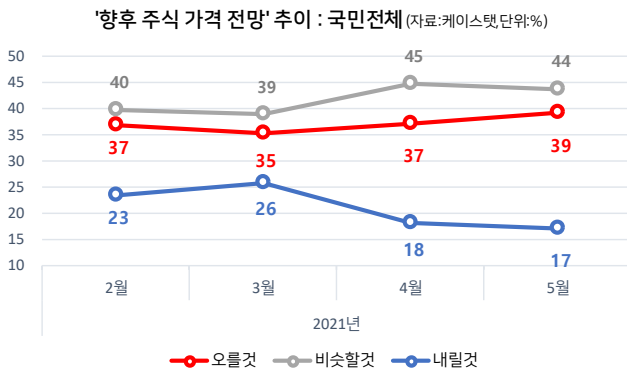


Kstat Point

- ☑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 특히 아파트 가격의 경우 5개월 연속 매달 1%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여론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음 (가격 상승 통계자료, 한국부동산원)
- ☑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국민여론처럼 하락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여권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뚜렷하고,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 주식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39%로 소폭 증가

- 향후 주식 가격 전망은 4월에 비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소폭 증가함
 - '지금보다 오를 것'은 39%로 2%p 상승했고, '지금과 비슷할 것'(44%)과 '지금보다 내릴 것'(17%)은 각각 1%p 하락함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특히 플러스 수치가 높은 계층은 △남자 40대, 남자 60대이상 △진보층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 '차이'의 플러스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남자 50대 △여자 40대 △충청, PK △보수층 등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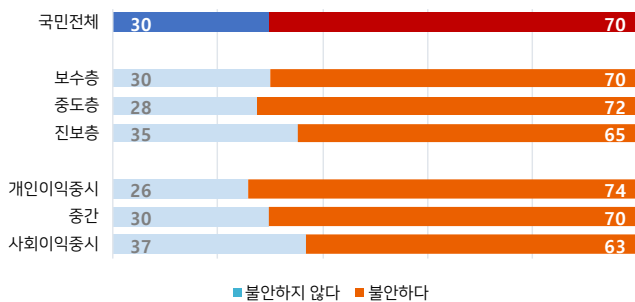
- ☑ 재테크 열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재테크 대상으로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것으로 보임 :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 올해 들어 5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코스피 시장 순매수 규모는 50조 9,836억 원에 달함 : 이는 네달 반 만에 작년 연간 순매수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주식시장 열풍의 강도를 알 수 있음
- ☑ 한편,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가격 급등으로 증시를 떠났던 자금이 다시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스피 시장 순매수 규모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주가는 하락하기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주식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5월 특별지표 : 한국민 '불안 의식'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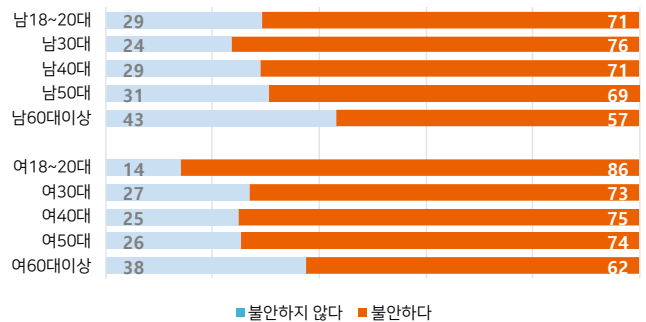
□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 '불안하다' 70%

-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생님께서서는 평소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세요?”라는 질문에 ‘불안하지 않다’ 30% vs ‘불안하다’ 70%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다라도 모든 계층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우세해, 삶과 미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공통 감정으로 보임
- ‘불안하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개인이익중시층 △남자 30대 △여자 2050세대 △충청권 △고졸이하, 대학재학 △블루칼라, 학생,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 ‘불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진보층 △사회이익중시층 △남자 60대이상 △여자 60대이상 △호남 △대학원재학 이상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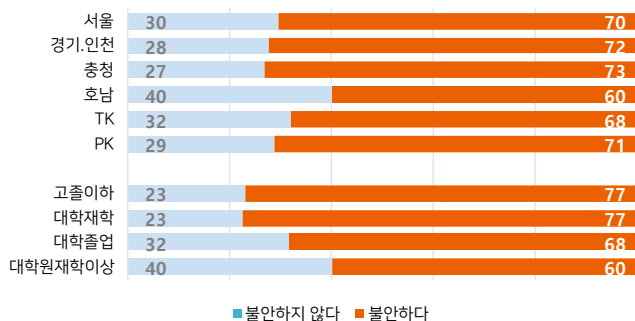
삶,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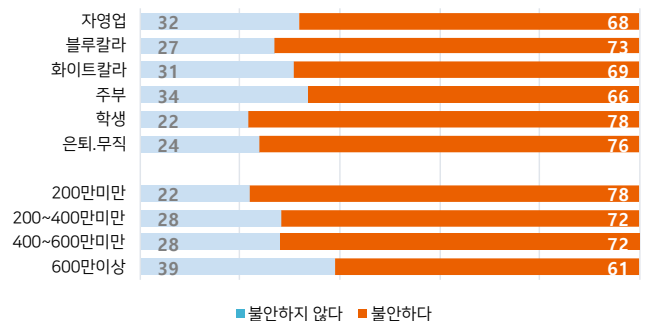
삶,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 성/연령별 (2021.05.09조사,단위:%)



삶,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 지역별,학력별 (2021.05.09조사,단위:%)



삶,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 직업별,소득별 (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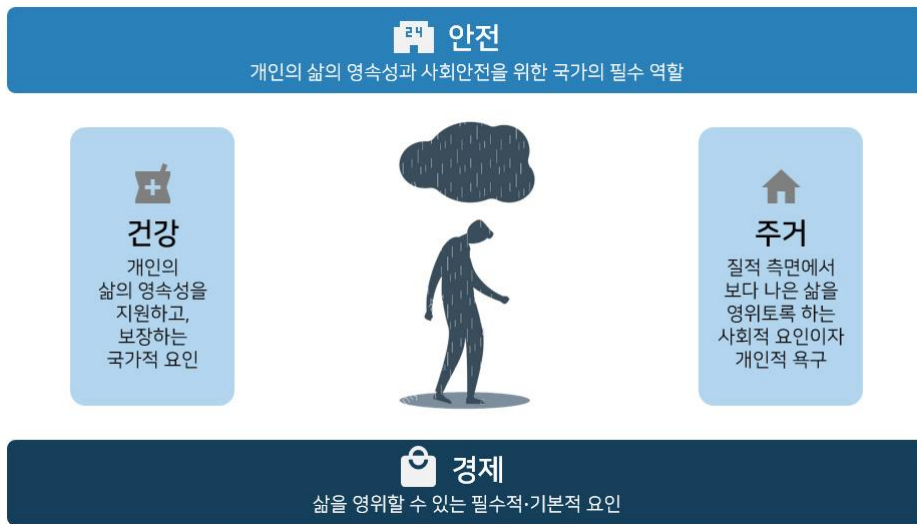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계층에서 동일한 정서임 : 앞서 살펴본 ‘재테크’ 열풍은 이러한 불안감의 반영으로 분석됨
- ☑ 또한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강한 특징을 나타냄 :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계층에서 불안감이 강한 것으로, 다분히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즉, 남성 중심사회이자 고학력, 고소득층에 유리한 사회구조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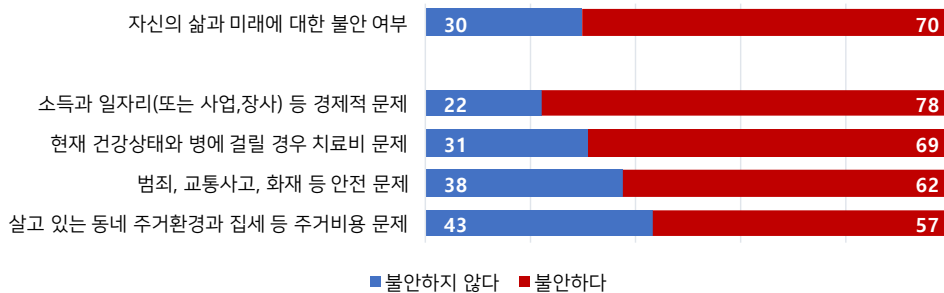
□ 삶 영역별 불안감, '경제적 문제' 가장 높아

-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함
 - OECD의 경우 총 11가지 영역, 24개 요소를 제안하고 있음(BLI : Better Life Index 더 나은 삶 지표)
 - 이러한 삶의 요소가 충족되지 못하면 개인은 '불안감'을 느끼게 됨
- 특히 현대 국가들이 개인(즉, 국민)의 영속적인 삶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원 또는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삶의 영역은 '경제', '건강', '주거', '안전' 등 4가지 영역임



- 이러한 4가지 삶의 영역별로 불안 여부를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를 가장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됨 ('불안하다', 78%)
 - 다음으로 불안감이 높은 영역은 '현재 건강상태와 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문제'(69%),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 문제'(62%), '살고 있는 동네 주거환경과 집세 등 주거비용 문제'(57%) 순으로 나타남

전반적 삶 불안 여부와 삶의영역별 불안 여부: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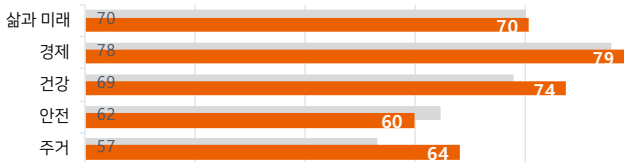
Kstat Point

- ☑ 경제적 문제는 개개인 삶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 요인데도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기초적인 삶의 토대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의미임
- ☑ 또한 최근 '부동산' 문제가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에 비해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주목됨

□ 수도권, 모든 영역에서 '불안감' 높아

- 불안 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불안감이 국민전체에 비해 높음
 - 서울의 경우 안전 불안감만 국민전체 보다 낮고, 그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전체 보다 높은 불안감을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와 수치가 국민전체 불안감임
 - 경기.인천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전체 보다 불안감이 높음
- 국민전체에 비해 불안감이 낮은 지역은 호남권임
 - 호남권은 삶과 미래, 경제, 건강, 안전, 주거 등 모든 면에서 국민전체 보다 낮은 불안감을 기록함
 - 특히 주거의 경우 불안감이 48%로 '불안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높음
- 충청권, TK, PK 지역은 국민 전체와 비슷한 불안감을 나타냄
 - 충청권의 경우 주거 불안감이 50%로, '불안하지 않다'는 의견도 50%로 팽팽함
 - TK지역은 안전 불안감이 국민전체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고, 주거 불안감은 50%로 낮은 수준임
 - PK지역은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보다 약간 낮은 불안감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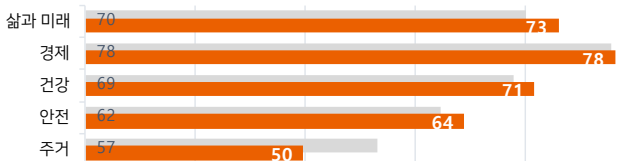
서울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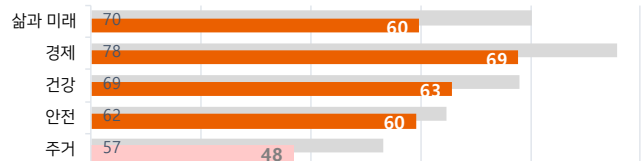
경기.인천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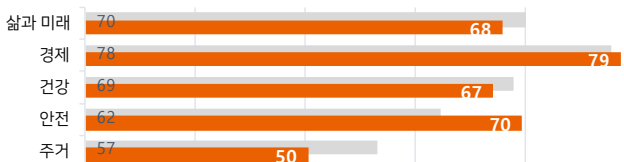
충청권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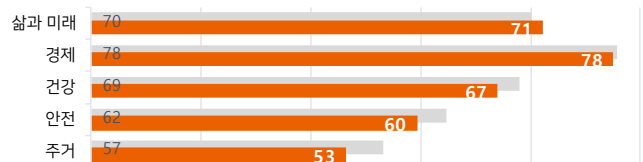
호남권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TK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PK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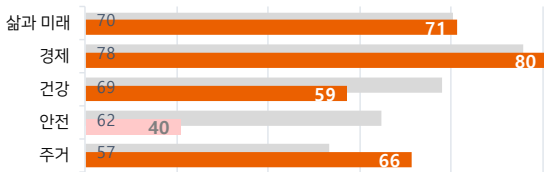
Kstat Point

- ☑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에 일자리 등 기회요인이 많기 때문임
 - : 그러나 정작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소 역설적임
 - : 이는 수도권에 기회요인이 많지만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주거비용 등 지출요인이 많기 때문으로 보임
 - : 특히, 주거 불안감의 경우 수도권은 60%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역은 50% 이하 또는 50%대에 그침
- ☑ 호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불안감이 낮아,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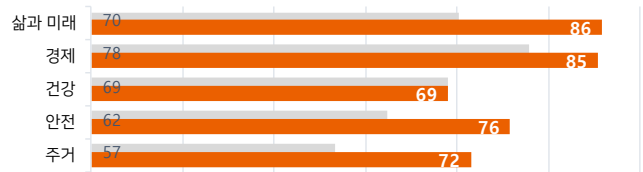
□ 여자 18~20대 불안감, 특히 높아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불안감이 높음
 - 모든 면에서 불안감이 가장 높은 성/연령대는 여자 18~20대이고,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가장 낮은 성/연령대는 남자 60대이상임
- 특히 여성의 안전 불안감이 높고, 남성은 국민전체 보다 낮은 불안감을 보임
 - 특히 남자 18~20대의 안전 불안감은 40%로, '불안하지 않다'는 의견이 6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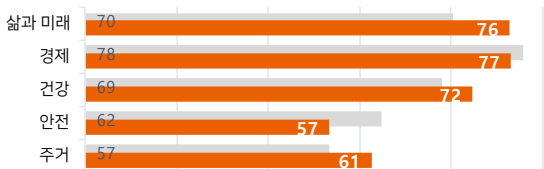
남자 18~2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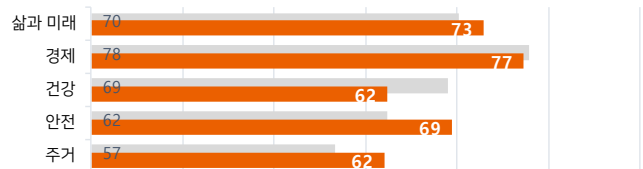
여자 18~2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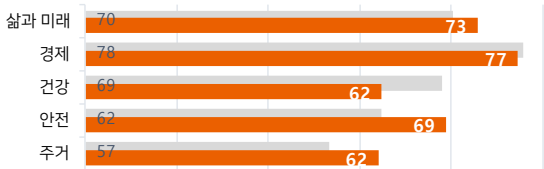
남자 3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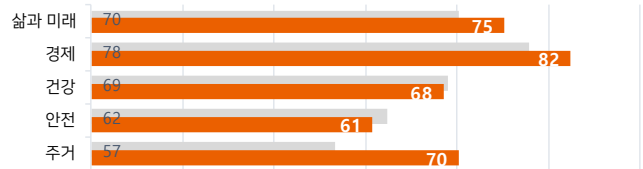
여자 3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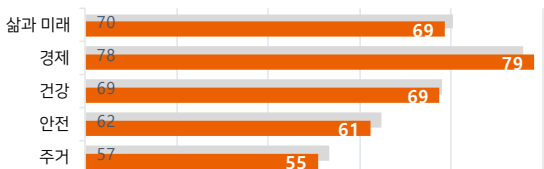
여자 3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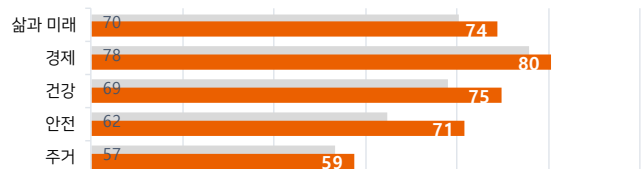
여자 4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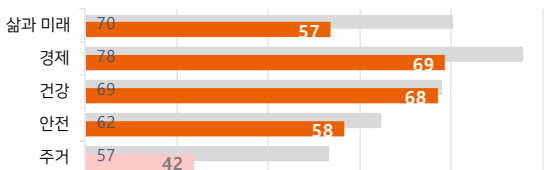
남자 5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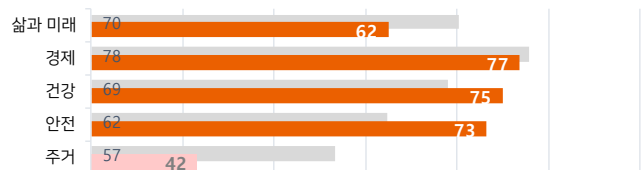
여자 5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남자 60대이상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여자 60대이상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Kstat Point

- ☑ 경제 불안감은 남성도 높지만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는데, 이는 남녀 간 임금격차를 비롯해 출산 후 경력단절 등 여성의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 또한 안전에 대한 여성층의 불안감은 범죄 통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28호] 발간 안내

28호는 『'공분'에 대한 국민의식 심층 분석』
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